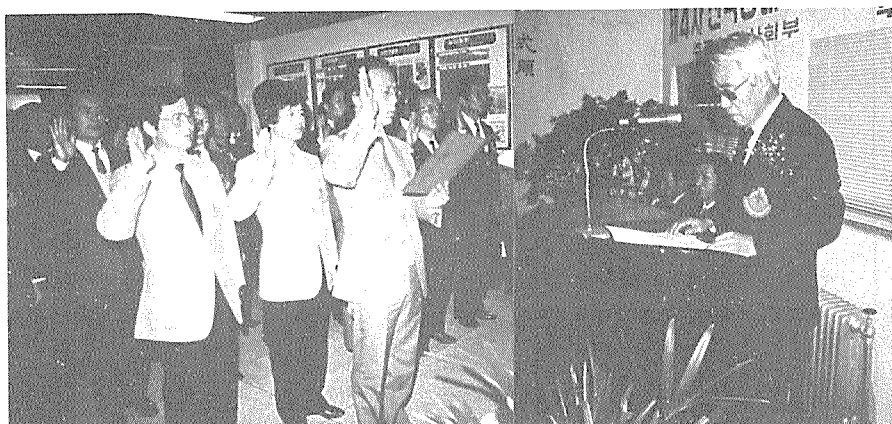


전국 장내 기생충감염을 실태조사

지난 3월10일, 결단식 가져



1971년부터 매 5년마다, 전국민의 기생충 감염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한 寄協은 지난 3월10일 오후 3시 기협본부에서 제 4 차, 전국장내기생충감염을 실태조사 결단식을 가졌다.

보건사회부 유원하보건국장등 유관인사와 임직원, 내외귀빈과 전국 13개 시도지부 교육연수생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결단식에서 寄協 徐丙高회장은 『3월부터 실시하는 제 4 차 전국장내기생충감염을 실태조사는 1971년 제 1 차 조사사업이래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전국 인구 중 표본집단에 대하여 층란검사를 실시, 층란별, 지역별, 감염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가기생충 관리사업의 방향조정과 정책대립을 위한 표준치로 삼고져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건사회부 유원하보건국장은 축사를 통해 『전국민의 기생충 감염율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통계자료가 국민보건 향상에 밑거름이 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으로 단원대표로 기협 검사부 박준영 주임이 선서를 통하여 정확한 변수집 정확한 검사, 정확한 투약, 정확한 통계를 실태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국민에 대한 친절·봉사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의 조사지역은 전국 215개 지역(도시 및 농촌)이며, 조사기간은 86년 3월10일부터 87년 6월31일까지로 정해지고 소요예산은 1억 6천여만원으로 확정됐다.

본부 및 서울지부 검사소 신축기공식

지난 3월10일, 협희마당에서

◀유원하
보건국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寄協 및 健協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내원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가보건의사업인 비전염성 만성질환 예방과 기생충박멸사업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할 것을 목적으로 지난 3월10일 오후 3시 본부 및 서울지부 신축검사소 기공식을 가졌다.

보건사회부 유원하보건국장등 유관인사, 임직원, 전문지 기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신축기공식에서 寄協徐丙高회장은 『신축되는 이 청사는 구 청사와 함께 증가하는 만성병질환과 기생충병을 퇴치하는데 크나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귀중한 장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외에도 각종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사실과 최신장비가 구비되어서 각종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되었다』고 식를 했다. 이어 유원하 보건의사회부 보건국장은 『신축 후 국민보건의사업인 기생충박멸사업에 더욱더 정진해 달라』 말했다.

한편 이번 신축하는 검사소는 공사비 2억 4천만이 소요되며, 건물규모로서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주 용도는 지하1층은 각종 회의 및 교육장으로, 지상1층은 일

반사무실, 지상2층은 건협검사실, 지상3층은 기협검사실로 활용할 계획이다.

3월10일 착공한 이번 공사는 86년 8월31일을 완공예정일로 하고 있다.

申暲鎮만성병 과장에 취임.

지난 2월 19일 字 보사부 발령
申暲鎮과장



보사부는 지난 2월 19일 국립의료원 약제과장으로 영진된 원봉필과장의 후임에 신경진 국립서울검역소 검역과장을 2월 19일자로 진보 발령했다.

만성병과장자리에 발령된 신경진과장은 전염병 예방 퇴치와 기생충박멸사업등 그 어느때 보다도 보건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된 것이다.

보건행정에 박식한 지식을 갖춘 신경진 만성병과장은 오랜동안 보사부에 몸담아온 베테랑 과장으로 그에 대한 기대가 자못 큰바 있다.